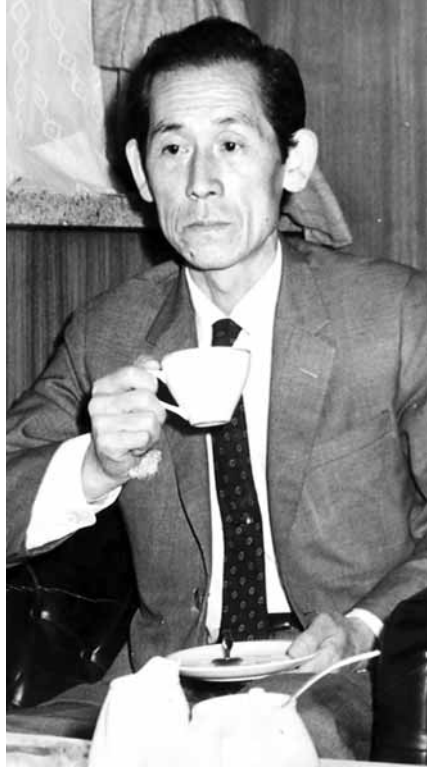


茶兄의 향기 오롯이... 김현승 작품 원본 만나다

시집 5권 영인본 발간... 당시 인쇄기술·편집체계 등 담겨

16일 양림동 오웬기념각서 문학잔치... 공연·학술발표도



다형 김현승

분별의 여름이 어느새 사라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에서는 제법 한기가 느껴진다. 열망으로 타올랐던 계절이 지나고 이제는 차분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이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시인이 있다. '고독의 시인' 다형 김현승. 한국 시단에서 지성적 서정시의 고전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받는 다형은 고요한 차분함 같은 시인이었다. 그의 시에는 깊이, 성찰, 맑음, 고요가 침잠돼 있다.

다형은 신성과 인간성 사이를 고민하면서도 인간의 내면에 천착했다. 또한 그는 말과 시와 삶의 일치를 몸소 보여주었다. 오늘날 많은 후배 문인들과 후학들은 그를 흠모하고 시를 즐겨 읽는다.

그러나, 정작 다형의 체취가 남아 있는 시집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뭄에 콩나듯 대학도서관에 한두 권 비치돼 있거나, 개인 소장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다보니 다형 문학을 연구하는 후학들이나 그의 시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원본을 접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하던 영원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

그 끝에서 나는 눈을 비비고 비로소나의 오랜 잠을 깬다.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영원의 별들은 흩어져 빛을 잃지만,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나는 내게로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따뜻한 체온을 새로이 느낀다.

(‘절대고독’ 중에서)

다형이 최근 다형의 시집 전 5권이 영인본(사진)으로 발간돼 화제다. 다형김현승 기념사업회(회장 장정식)에서 발간한 ‘김현승시집 전 5권 영인본(한림)’은 원본을 촬영해 복제를 한 작품집이다. 5권 외에 발간된 시집 ‘새벽교실’에는 송실전문 시절 양주동 박사의 추천으로 동아일보에 게재하며 등단했던 시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담겼다.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춘배 시인은 “대학 도서관에 있는 고서들을 일일이 찾아 원본을 확인했다”며 발간의 어려움을 말했다.



영인본 5권은 1957년부터 1975년 즈음에 발행된 원본 작품집을 토대로 간행됐다. ‘김현승시조’, ‘옹호자의 노래’, ‘견고한 고독’, ‘절대 고독’, ‘마지막 지상에서’ 등 모두 5권이다. 책은 당시의 인쇄기술뿐 아니라 편집 체계를 엿볼 수 있게끔 원본과 똑같이 영인되었다. 60년대와 70년대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전개했던 다형의 체취가 오롯이 담겨 있어 남다른 감회를 준다.

“제2시집 ‘옹호자의 노래’를 출간한 뒤, 5, 6년 동안에 써서 발표한 시편들 중에서

35편을 골라 이 시집을 엮었다. 경험로나 나 연령으로나 내 일생에선 가장 중추한 시기에, 나는 이 시집에 형상화된 언어를 통하여 생명의 내부를 내가 체득한 진실대로 이야기 하고자 하였다. 산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즐거움이 아니라, 근심이며 하나의 심각한 병이다.”(‘견고한 고독’ 후기에서)

시집 전 5권 영인본 발간을 기념해 2017 다형문학잔치가 열린다.

16일 오후 2시 양림동 오웬기념각에서 열리는 다형문학잔치에는 영상물 상영,

다형시 감상, 시음악 공연, 학술발표 등이 펼쳐진다.

식전행사로 다형 일대기 영상물이 상영된다. 영상물을 통해 시인으로서의 삶, 교육자로서의 삶, 자연인으로서의 다형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장정식 기념사업회장의 인사말과 임원식 광주문인협회장, 박주선 국회의원, 장병완 국회의원,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의 축사 및 환영사가 예정돼 있다.

2부 ‘다형시 감상’에서는 시낭송과 시음악이 펼쳐진다. 다형시낭송회 송경덕, 장진규, 정혜숙, 김수하, 김용길, 장영숙 회원이 ‘꿈을 생각하며’ 등 다형의 시를 들려준다.

이어 테너 박현은 ‘가을의 기도’(안정준곡)를 선사한다. 또한 테너 박현, 소프라노 박성경, 바리톤 이건이 ‘푸니쿠니푸니쿨라’와 ‘젊은 그대’를 부른다.

마지막 3부 학술발표회는 시인인 손광은 전남대 명예교수가 ‘다형시집 5권에 흐르는 시정신의 변위’에 대해 발표를 한다. 손 교수는 “다형은 서양의 주지적이며 지성적인 특성과 동양적 신비주의와 선비정신을 융합해 한국적인 서정을 구축했다”고 평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선시대 흥어장수 문순득 표류 국가 교류 행사

극단 ‘갯돌’ 오늘~17일 목포·신안 우이도 등서...마카오·필리핀·오кина와 단체 초청



신안우이도 출신 문순득(1777~1847)은 조선시대 흥어장수였다. 그는 1801년 12월 흥어를 사라 흑산도로 출항했다 돌아오는 길에 태풍을 만나 오кина와에

8개월 머물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태풍을 만나 필리핀에서 9개월을 체류한다. 상선을 타고 마카오로 도착한 그는 중국 광저우를 거쳐 난징, 베이징 등을 거쳐 14개월 횡단해 3년 2개월 만에 고향으로 귀환했다. 그의 기구한 운명은 손암 정약전(丁若鏞)이 쓴 ‘표해시말’(漂海始末)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전남의 대표적인 전문예술단체인 극단 갯돌은 올 해로 3회째를 맞는 ‘문순득 표류국가 상생 프로젝트’를 13일부터 17일까지 목포와 문순득의 생가 신안 우이도 등에서 연다.

올해는 마카오 Ieng Chi무용단과 마카



마카오 무용단

오문화유산협회와 교류하며 필리핀, 오кина와 대표단들도 방문한다. 이번에 초청된 마카오 Ieng Chi무용단은 1998년 설립된 예술단체로 홍콩,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교류 협업에 참여한 단체다.

이번 국제교류 행사는 마카오민속춤 워크숍, 목포역사문화답사, ‘MOON Night’, 문순득표류기연합공연, 문순득생가답사와 국제세미나 등 총 6개 행사로 구성된다. ‘MOON Night’에서는 신안 압해도 소풍편선 잔디마당에서 216년 전 문순득

의 밤을 따라 가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인디언 수니의 콘서트를 시작으로 시낭송, 토크쇼, 각국의 공연 등도 준비됐다.

문순득 표류기 연합공연은 안좌도에서 열리는 ‘신안군민의 날’에 초청됐으며 한국, 마카오, 필리핀, 오кина와 4개국 문순득의 표류 스토리를 제작해 무대에 올린다. 국제세미나는 ‘동아시아 해양문화와 21세기 문순득의 바닷길’을 주제로 주제로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원장 강봉룡)과 공동 주최한다. 문의 061-243-9786.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피아니스트 박수영의 도전

협주곡으로만 독주회...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피아노 독주회 레퍼토리를 피아노협주곡만으로 채우는 건 드문 일이다. 25번째 독주회를 여는 피아니스트 박수영씨가 색다른 시도를 한다. 14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이 날 공연에서는 러시아적인 색채가 강하고 화려하고 박력 있는 기교를 자랑하는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내림 나단조 Op. 23을 선보인다.

자유로운 소나타형식의 1악장, 평화롭고 서정적인 주제의 2악장, 투박하고 흥겨운 론도형식의 3악장으로 구성된 곡이다.

이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 c단조 Op. 18을 연주한다.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가 작곡가로서 겪었던 좌절과 그에 따른 고뇌, 투쟁과 극복에의 의지를 담은 곡이다.

협연은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맡는다. 지휘는 광산대 교수 변욱 씨다.

박씨는 전남대를 거쳐 이화여대 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으며 프랑스 파리 콘서바토리 인터내셔널과 에콜 노말 슈페리얼 과정에서 공부했다. 문의 010-4508-9955.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 건축상 참가작 공모

건축시험 광주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정명철)는 지역 내 우수한 건축사와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21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참가 작품을 공모한다.

응모대상은 건축사 업무등록을 한 자의 작품으로 지난 2015년 이후 광주시 관내에서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에 한한다.

접수는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ikira.kira.or.kr/) 응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오는 15일까지 광주건축사회 사무국(광주 북구 무등로 255 4층)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작품접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주간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주거부문과 비주거부문 각각 금상 1작, 은상 1작, 동상 1작 등 총 6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당선된 건축사와 시공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고, 건축물에는 선정패를 제작, 부착하게 된다.

당선작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리는 ‘제14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전문기자 ej6621@

농촌 · 어촌 · 산촌 三村에서 만나는 착한 농부

이연복

강례오

매주 금요일 밤 8시 20분

유쾌한 시골촌

착한 농부를 찾아서

CHANNEL A